



# 화려하고 경쾌하게

1부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2부 '리골레토'·'라보엠' 등  
이병욱 지휘·클림오케스트라 무대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이 오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열린다.

지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울하고 힘든 요즘, 화려하고 경쾌한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며 활력을 얻는 것은 어떨까. 오페라사(史)에 빛나는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오페라 향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을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선보인다.

국립오페라단을 초청해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명작을 주축으로 오페라 명장면들이 펼쳐진다. 오페라 애호가는 물론 문외한인 관객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축제의 장이다.

특히 예술극장 극장 1의 특성을 살린 원형무대(아레나 무대)는 다양한 위치에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 콘서트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부 무대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꾸며진다. '라 트라비아타'는 화려한 사교계의 주인공 비올레타가 알프레도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

다. 비올레타는 사랑을 위해 희생하지만 결국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에서는 전주곡을 시작으로 '이상해, 아 그 인가, 언제나 자유롭게', '그녀를 떠나선, 나의 뜨거운 열정', '친애하는 발레리양, 아!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지난날 이어, 안녕', '파리를 떠나서' 등을 들려준다.

2부 제목은 '보석 같은 아리아와 중창'이다.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파우스트', '리골레토', '라보엠', '유쾌한 미망인', '돈 지오반니', '돈 카를로', '미소의 나라' 등 오페라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소프라노 김성은·김소영, 테너 정의근·박성규, 바리톤 양준모, 베이스 박준혁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 6인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의 정수를 선사한다. 차세대 지휘자 이병욱과 함께 하는 클림오케스트라는 풍성하고 밀도있는 선율로 관객을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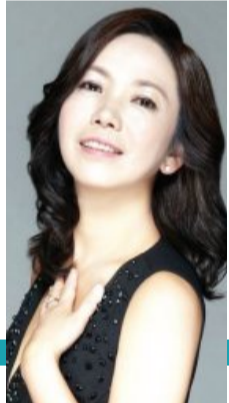
한편 1962년 창단한 국립오페라단은 창작오페라 '왕자호동'을 시작으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 레퍼토리를 해 관객들에게 오페라 최고의 정수를 선보여오고 있다.

아울러 오페라가 자주 개최되기 힘든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 오페라', 미래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을 발굴하는 '성악콩쿠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학교오페라' 등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1899-5566.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휘자 이병욱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최원휘

## 광주관광재단, 클린워킹 '예쓰투어'

환경의 날 맞아 12월까지

광주관광재단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예술관광 클린워킹투어인 '예쓰(예술+쓰레기줍기)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미래 세대에 깨끗이 보존, 전달하고, '필(必) 환경 광주' 실현 및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예쓰투어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최대 4명 단위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1인 여행객은 '혼자서예쓰', 2인 이상 4인 미만은 '다같이예쓰'로 지칭해 광주전반을 따라 쓰레기를 주운 후 양립동 갤러리투어 및 공예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예체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직공원 산책길과 사직전망대를 돌아보면서 광주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예술여행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쓰투어의 모든 사용 용품은 재사용 가능한 장갑, 친환경 쓰레기봉투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며 투어 종료 후 SNS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제로웨이스트 제품인 여행용 키트(사진) 또는 주방용 키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10월에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된 코스를 개발해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에서 여행과 환경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민중미술의 대부 손장섭 화백 별세

완도 출신...민중미술인협회 초대 회장 역임

민중미술의 대부 손장섭(사진) 화백이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세대 민중미술 작가인 고인은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중심인 '현실과 발언' 동인을 거쳐 민중미술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1941년 완도에서 태어난 손 작가는 서라벌고와 홍익대에서 수학했다. 제2회 민중미술상, 제10회 이중섭미술상과 제15회 금호미술상을 수상했다. 특히 고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한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에 박서보 화백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2월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손장섭, 역사가 된 풍경'전이 열렸다. 당시 전시는 민중미술의 대부로 60년 화업을 이어온 고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0여 년 전부터 파주에서 작업하는 손화백이 그림전에 작품을 선 보인 적은 있지만 오롯이 자신의 작품으로 광주에서 개인전을 연 것은 50년 만이었다.

'거대한 나무-신목(神木)', '민중의 소리-역사의 창', '자연풍경' 등 모두 3색선으로 이



루어진 전시에서 손 화백은 '손장섭의 색'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색감으로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특히 작가의 냉철한 비판 시각과 역사 의식이 담긴 작품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고3 때 4·19 시위가를 보고 직접 그린 '사월의 함성', '현실과 발언' 창립전에 출품했던 '기치촌 인상', 80년 오월을 그린 '오월 함성' 등이 눈길을 끌었다.

손 화백은 "역사라는 건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다. 망원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역사의 창'이라는 타이틀 아래 많은 작품들을 그렸다"며 "풍경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 역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화백의 장례는 지난 3일 오전 일산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쳤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고정희 시인 30주기 추모문화제

20일까지 생가·녹우당 충헌각 등 시그림전·포엠콘서트·아카이브전



고정희 시인(1948-1991)은 여성주의 문학을 추구했던 남도가 배출한 대표 문인이다.

시인은 '여성신문' 초대 편집 주관을 역임했으며 여성 문화 운동 중인 '또 하나의 문화'에서 활동했다.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초혼제', '이 시대의 아벨' 등의 시를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절망을 이겨내는 의지를 노래했다.

고정희 시인 30주기를 맞아 추모문화제가 고향 해남에서 열린다.

고정희기념사업회는 오는 20일까지 시인의 묘소

(생가)를 비롯해 녹우당 충헌각, 해남꿈누리센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시인의 30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비롯해 시그림전, 포엠콘서트, 학술대회, 아카이브전 등이 마련됐다.

먼저 시그림전, 시문글씨전은 윤선도유적지 충헌각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고정희 시인을 주제로 한 시그림, 시문글씨가 전시될 예정이다.

포엠 콘서트 '따뜻한 동행'은 해남꿈누리센터 공연장에서 5일 열린다. 고정희 영상사, 고정희 시노래, 이야기마당, 시낭송이 펼쳐지며 재즈보컬리스트 마로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에는 30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리며 고정희 문학 세계에 대한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6일은 고정희 묘소(삼산면 송리리)에서 추모제가 펼쳐진다. 추모사, 추모시, 추모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고정희 시인 아카이브전도 열린다. 오는 7월 11일까지 땅끝순례문학관 기획전실에서 고정희 유필 원고, 유품, 사진, 작품집 등 전시가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현우·이효복 부부 시화전 오늘 첫눈예술가페서 시낭송

박현우·이효복 부부시인의 시화전이 열리고 있는 '첫눈예술가페'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455)에서 4일 시낭송회가 열린다.

이날(오후 6시30분)은 홍성담 화가가 참여해 이효복 시인의 '꽃무릇 산천' 등을 낭송할 예정이다.

또한 부부 시인의 작품 네 편을 노래로 만든 신재창 가수가 참여해 노래를 선사한다. 박현우 시인의 '홍시'와 '초승달' 이효복 시인의 '꽃무릇 산천', '가을이 밟고 간 자리'가 노래로 재탄생한 것. 아울러 이 시인의 여고 은사인 송문재 교사를 비롯해 이 시인의 여고 제자들이 함께 참석해 시를 매개로 자유로운 토크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첫눈예술가페에는 두 부부시인의 작품을 모

티브로 전해욱, 김화순, 김희련, 천현노, 박성우, 정정호, 홍성민, 홍성담 8인이 그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화가들은 두 시인의 시 한편씩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다.

이 효복 시인은 "이번 전시는 시를 주재어로 선택 하되 그림만의 독자성을 강조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무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시장 벽면에는 시와 그림뿐만 아니라 시의 키워드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배경음악 대신에 시인이 직접 녹음한 시낭송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의 010-6771-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지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